

‘악성 앱’ 잘못 설치하면 불법스팸 발송자 된다

- 불법 동영상 재생 앱 설치 후 악성코드 감염...내 번호로 불법스팸 발송 피해 -

악성 앱을 설치한 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스팸 발송자가 되어 이동전화 서비스가 중지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최근 불법 동영상 재생 앱(티비위키 등)을 설치한 이용자의 번호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박 사이트 접속 등의 불법스팸을 대량 발송하는 피해가 있어 31일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렇게 대량 불법스팸 발송에 악용된 번호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이용약관상 이용 정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최근 방미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불법스팸 대응센터’에는 ‘cc취급이니~?’, ‘cc♥welcome 100%~’ 등으로 시작하는 도박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불법스팸 문자가 개인 이용자들의 번호로 대량 발송돼 번호가 정지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법 동영상 재생 앱(티비위키 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문자메시지에 대한 접근권한을 확보해 해당 번호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박 사이트 접속 등의 불법스팸을 대량 발송하는 방식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스팸 발송자가 되는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앱을 설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동전화가 악성 앱 설치로 인한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해당 앱을 삭제하거나 이동전화를 초기화해야 한다.

불법스팸에 악용돼 이동전화 이용이 정지된 경우에는 불법스팸 대응센터(☎118)를 통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이동통신사업자에 제출해 이용정지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불법스팸이 확인될 경우,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이나 휴대전화 간편신고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불법스팸 신고 방법 >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휴대전화 간편신고	118상담센터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
			

담당 부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이용자기반과	책임자	과 장	심아미 (02-2110-1520)
		담당자	사무관	이명심 (02-2110-1522)

